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보전방법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경영학박사)

1. 환경문제의 역사성과 현실

환경문제는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태초부터 오랜 기간동안 인간이 자연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인류문명이 발달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훼손과 그 위험을 알리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인간자신의 필요에 의한 의·식·주 해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물건사용후에 발생하는 잔재 즉 쓰레기의 발생이다.

고대이집트의 왕족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농경을 바탕으로 찬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문명을 이룩했지만 폐기물에 대해서 만큼은 무감각하였다. 도시국가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그 인구들이 배출해낸 쓰레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 세대의 번창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이 쓰레기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국가나 사회는 발전은 커녕 몰락마

저 초래한다는 것을 고대사회의 예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지금은 좀 나아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몇년전 “국내의 주요 환경지표”에 의하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7개국과 대만, 태국, 등 개발도상국 6개국의 각종 환경지표에서 비교된 우리나라의 수준은 쓰레기 배출량이 1위인 반면, 하수처리율은 최하위로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의 측면에서 비교국가 가운데서 최악의 성적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2. 환경패러다임의 전환

지표상으로 나타난 열악한 환경상황은 곧 국가나 기업의 다양한 대응정책이나 전략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 직접 반영되어 환경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얻은

과제

물질문명과 과학기술문명의 편리함을 점차 값어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다. 환경파괴, 환경문제, 환경오염 등의 단어가 그냥 추상적인 구호나 만 나라의 얘기일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생활에 침투되어 수도물마저 직접 받아서 마시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다. 생수를 배달시켜 먹거나 정수기를 필수품처럼 설치하고 있으며 동네마다 약수터가 있는 곳에서는 약수를 받아가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총체적 수질오염의 문제는 BOD(화학적 산소요구량)라든지 하천의 부영양화 등과 같은 자연과학적 전문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상수도원의 오염에서부터 하수처리의 열악함까지 실로 심각하기 그지없다. 이제는 매일 어떤 종류의 신문을 펼쳐 보아도 환경관련기사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이다.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환경문제의 폐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단체, 기업 그리고 다양한 민간단체가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해결의 복잡성과 제도적 및 재정적 문제가 겹쳐 쉽게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수준에서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이런 제도적 측면에 의해서만 해결책이 강구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 접근으로서 사회구성원의 의식, 태도, 습관, 인성, 문화 그리고 환경운동의 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주체들이 실천적,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당연한 시대임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도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는 징후가 지구촌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와 가까운 동북아시아에서도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황해의 오염화, 산성비의 월경 이동, 동해의 핵폐기물 투기 등이 우리를 더욱 염려스럽게 한다. 지금까지의 환경오염 방지노력인 오염의 사후처리 즉 오염물이 일단 발생된 후에

이를 처리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 오염물의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오염의 사전예방"으로 환경패러다임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현 수준에서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비도시화이거나 인류의 경제규모가 작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자연의 자정능력이 커서 폐기물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대량소비, 대량생산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자연의 자정능력은 한계를 이미 넘어서게 되었고 따라서 오염물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줄이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

3. 환경보전주체의 과제

1) 환경운동의 성격과 과제

어느 기업의 광고에서는 "우리는 환경과 고객을 생각하는 기업"을 주제로 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의 중요성과 고객의 관점을 존중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해야 할 총체적 방향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에 대한 의식의 각성이다. 환경은 인간주위에 둘러싸여, 저 먼 곳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지구와 한반도, 우리의 지역사회, 내가 살고 있는 주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진 주요한 사회적 이슈라는 점이다. 한편 미시적인 경우 우리 모두의 삶의 운명이나 방향을 결정짓고 또한 감기나 폐질환에 걸릴 직·간접적, 장·단기적 관계를 맺는 심각한 개인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한다. 우리의 환경운동은 당장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에 돌입해야 하는 것도 급하지만 장기적으로 생명력을 가진 운동이 되려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사실 의식의 각성은 구호의 제창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의 타율적 캠페인의 수준에서 발생되기 힘들다.



자발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의 각성은 지속성과 힘을 가지게 되며, 그와 같은 의식의 각성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식에서 생길 수 있으므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셋째, 자발적이며 민간중심의 환경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사실, 관련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환경운동을 제도화시킬 수는 있다. 그렇지만 환경운동이 가질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이데올로기적 경향이나 오해에 주의해야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가 중심이 된 민간단체가 환경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민간단체는 튼튼하게 무장된 의식체고운동과 환경교육을 바탕으로 환경운동이 지향해야 할 실천적 거리를 정교하게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환경운동단체는 국가나 공공단체 그리고 기업에 대해 암묵적으로 건전한 환경적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오염방지나 피해보상에 대해 제도적 규제의 적절한 조절을 요구하고 경제적으로 환경개선시설 및 기술투자의 증대와 같은 국가의 재정투자확대를 요구하고 이에 더해 힘있는 환경운동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런 환경운동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환경운동에 대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운동의 가장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집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형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과 환경의식적 인성의 함양으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생활문화의 창달을 삶의 전반기에 몸에 베게할 때 우리의 환경적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

여섯째, 산업구조의 재편이나 경제발전 계획의 거시적 수정과 같은 구조적 해결책과 더불어 미시적이고 실천가능한 그래서 소규모의 성과가 축적되어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천될 때 우리의 환경적 장래는 달

비관적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세계는 이제 얼마나 환경적으로 지탱이 가능한 개발로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냐로 판가름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가능성있는 나라와 가능성 없는 나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크고 환경적 가능성이 그 나라의 장기적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의 많은 나라를 러시아나 중국, 인도 등과 같이 환경적으로 황폐한 나라와 당장의 발전이 좀 늦기는 하지만 환경적으로 양호한 인도네시아와 남미의 여러 나라로 구분해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운동도 제도적 수준에서 보완한 후 발전의 속도에서 약간 늦더라도 장기적으로 환경가능성있는 나라로 부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2) 기업의 예방차원적 환경보전

지난 1992년 리우에서 합의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우리의 기업들은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공정을 개선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환경보전에 관해 선도적인 기업인 경우 자체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환경선언”을 하거나 환경전담조직의 신설 및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기업보다 한발 앞서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환경에 관한 기업들의 노력이 결코 작지는 않지만 많은 기업들의 노력이 대체로 사후처방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노력만큼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보전을 예방적 차원에서의 설계 및 실행단계로 접근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로써 제조업인 경우 전과정 평가 즉 원료의 취득단계에서부터 제품의 폐기단

3. 21세기

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이나 제조공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귀사에서 어떤 환경보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라는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다. 즉 제품을 만들기에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는 기업은 전체 조사대상기업의 21.7%(23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의 환경보전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표〉 환경보전운동의 전개내용

응답내용	빈도(개)	백분율(%)
재활용운동	39	36.8
에너지 절약	10	9.4
제품설계시 환경문제의 고려	23	21.7
기타	2	1.9
무응답	32	30.9
합계	106	100.0

자료: 정보통신과 환경, 한국통신출판부, 1995, P.302

너지의 흐름에 이상현상이 일어나면 지구생태계는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가지는 환경용량 이내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의 새로운 파고(波高)를 지구적인 환경위기의식으로 이해하고 또한 환경문제와 무역을 결부시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수립하는데 적극 동조적이어야 한다.

특히 기업은 환경에 관한 국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경영전략은 물론 정부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 방식에도 순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품의 개발, 생산, 유통 및 폐기 등 기업활동 전단계에 걸쳐 환경요소를 고려하는 것과 국제환경규범에 부합되도록 하는 사명감을 갖는 것이다.

이제 4년 정도만 있으면 21세기가 전개된다.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세기를 “정보화 시대” 혹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대”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환경의 세기”라고 불리워지는 만큼 환경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개인이나 가정은 쓰레기량의 최소한 배출 및 분리수거에 협조를, 기업은 기업경영과 환경보전을 접목시키려는 시각을, 국가는 환경정책 우선주의를 수행해야 한다. 즉 모든 경제주체는 성장·발전보다 환경보전을 우선시하는 의식의 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4. 환경보전의 국제성과 맺음말

요즈음 물환경, 대기환경, 환경관리, 환경경제, 교통환경 등 환경이라는 말이 붙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다. 각자가 살고 있는 국한된 지역 뿐만 아니라 하나 밖에 없는 지구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큰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끝이 없어 보이는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 흐름이며, 나머지 하나는 지구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순환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물질과 에